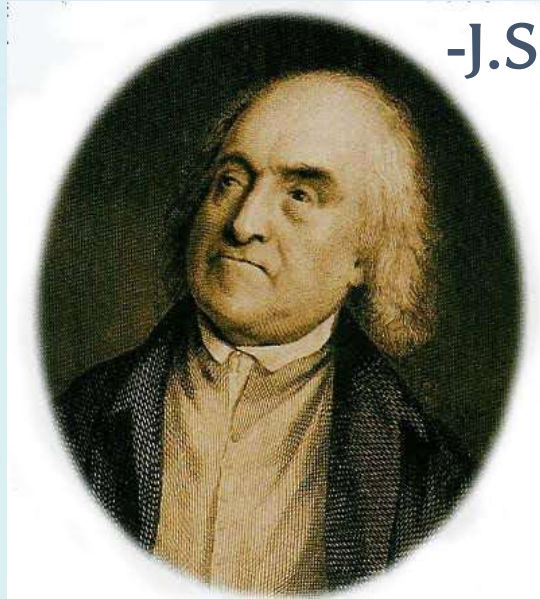


J. Bentham(1748-1832)

“벤담은 영국 개혁의 선구자이다.”

-J.S. M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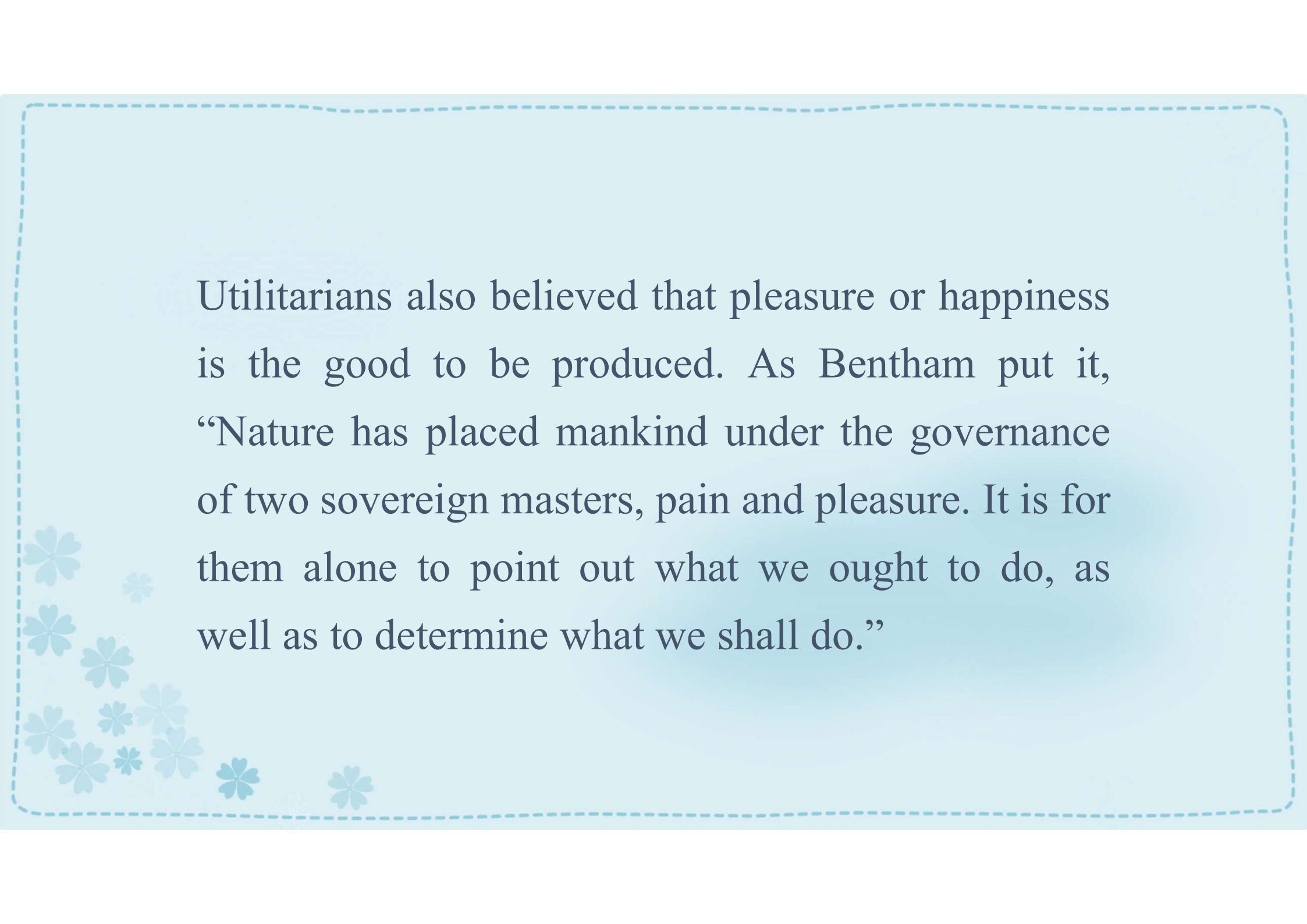
utilitarianism ::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

- I . Of the Principle of Utility
- II . Of Principles Adverse to That of Utility
- III . Of the Four Sanctions or Sources of Pain and  
Pleasure
- IV . Value of a Lot of Pleasure or Pain : How to be  
Measured
- V . Pleasure and Pains : Their Kinds.

...



Utilitarians also believed that pleasure or happiness is the good to be produced. As Bentham put it, “Nature has placed mankind under the governance of two sovereign masters, pain and pleasure. It is for them alone to point out what we ought to do, as well as to determine what we shall do.”

The basic moral principle of utilitarianism is called “The Principle of Utility” or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The morally best (or better) alternative is that which produces the greatest (or greater) net utility, where utility is defined in terms of happiness or pleasure.

---

We ought to do that which produces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자연은 인류를 두 군주, 즉 쾌락과 고통의 지배아래 두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는 물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이 두 요소이다.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오직 이들의 지배에 달려있다. 그들은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고, 사고하는 것 모두를 지배한다. 이 두 요소에 대한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오직 이러한 예속을 증명하고,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 사실상 언제나 이 제국에 예속된 채로 남을 뿐이다.”



“유용성의 원리란 어떤 모든 행동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 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증가시키는 경향성을 갖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 경향을 갖는가에 따라 그 행위를 시인하거나 부인한다는 것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행위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 (한편,)...

“어떤 것이 한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거나 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곧 그것이 그 개인의 쾌락의 총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며, 달리 말하면 고통의 총계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may come*). 동물들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지도 모른다. 동물들의 권리는 폭군만을 예외로 하면, 그 누구에 의해서도 억압받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이미 피부색이 검다는 것이 인간을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고통(또는 고문)을 주고도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 것이 좋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젠가 다리의 수나 피부의 털 그리고 엉치등뼈의 마디를 가지고 있는 감각적 존재(*sensitive being*)가 위와 같은 운명이 되는 경우 또한 아무런 배상을 받지 않은 채 내버려두어도 된다는 것이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 ■ *Panopticon or the Inspection House, 1876.*

